

與 전략공관위 띄우며 총선채비 본격화

현역 불출마 지역구 중심으로 전략공천 논의 박차

이총리, 선대위원장 역할 전망…세종 출마 가능성 제기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낙점됨에 따라 이낙연 총리의 당 복귀가 임박하면서다.

이 총리의 총선 ‘역할론’을 놓고 당내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는 가운데 전략 지역구에 어떤 ‘말’을 놓을 것인지에 대한 당 지도부의 고민도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18일 최고위원회에서 도종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설치에 결정했다. 전략공천과 관련된 논의를 공식화한다는 의미다. 그동안

은 당 상설기구인 전략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략공천 논의를 진행해왔다.

일단 민주당은 현역 의원이 불출마하는 지역구를 중심으로 전략공천을 우선 논의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이에 따라 정 후보자의 지역구인 서울 종로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지역구인 서울 광진구가 우선 전략공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미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진영(서울 용산)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현직 장관인 박영선(서울 구로울)·김현미(경기 고양정)·유은혜(경기 고양병) 의

원의 불출마 가능성도 큰 만큼 당에서 이들 지역구에 대한 전략적 고민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이해찬 대표와 원혜영 의원 등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의 지역구 역시 전략공천 고려 대상이다.

이런 가운데 이 총리가 내년 총선을 위해 당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를 놓고 당내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우선 선거대책위원회가 ‘공동 리더십 체제’로 출범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 총리가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이 총리가 위원장직을 갖고 전국을 돌며 지원유세에 나서면서 당의 승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지역구 출마와 비례대표 출마 가능성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총리가 각종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유력한 ‘잠룡’이라는 점에서 서울 종로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종로가 걸출한 정치 지도자들을 배출한 ‘정치 1번지’로서의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세종시에 출마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 총리가 내각을 통할해 온 만큼 행정 중심지 세종시 출마가 적합하다는 것이다.

다만 여야 대치로 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입법동의 절차가 공식사퇴 시한(지역구 출마 기준 1월 16일)까지 마무리되지 미지수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총리의 비례대표 출마 쪽에 무게를 실는 전망도 나온다. 비례대표 출마시 공식사퇴 시한은 내년 3월 16일이다. /연합뉴스

주승용, 여수 쌍봉초 국비 예산 4억6천만원확보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울)은 18일 여수시 학동에 위치한 쌍봉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보수를 위해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4억6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쌍봉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보수 사업은 1993년 준공돼 26년이 경과된 노후 교육시설 보수사업으로, 다목적강당 지붕, 외·내벽체 및 바닥 등 전체적인 보수공사에 8억2천15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주 부의장은 “쌍봉초등학교 다목적강당은 천정 누수로 체육관 바닥 및 사무실 벽체 등이 파손되거나 곰팡이 증식으로 교육환경에 좋지 않아 보수가 시급한 상태다”며 “낙후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한 만큼 조속히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윤소하, 목포대의대·병원 타당성 연구결과 발표회

20일 목포시청 2층 회의실

목포대학교와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주최하고 정의당 목포지역위원회가 주관하는 ‘목포대 의대·부속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결과발표회’가 20일 오후 3시 목포시청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발표회는 연구책임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오영호 연구위원이 1년 4개월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600페이지가 넘는 전체 보고서 중 교육부에 제출된 요약보고서를 중심으로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윤 의원은 “연구 결과 목포대 의대와



부속병원이 전라남도 서남권의 의료취약현실을 반영해 그 필요성과 타당성, 효과성이 확인되고 있다”며 “특히 의대와 부속병원이 함께 설치될 경우 직접고용이 4천714명, 간접고용이 1만8천642명에 달하며 이로 인한 직접 생산유발 효과는 9천438억원, 간접생산유발 효과는 1조4천897억원에 달하는 등 지역경제를 살리는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석패율제 뒤흔들라…與 “중진구하기 오용”, 정의 “與 표분산 우려”

도입 놓고 ‘줄다리기’ 여전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18일 공직선거법 협상에 ‘석패율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소수야당들이 석패율제 도입을 포함한 선거법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민주당 내에서 ‘석패율제 불가론’ 기류가 형성되고 있어서다.

석패율제를 둘러싼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가운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각 정당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실마리를 찾기가 녹록지 않아 보인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 원안에는 서울·경기인천·영남·호남제주·충청·강원 등 6개 권역에서 각 2명의 ‘석패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길을 열었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 내에서는 석패율제가 개혁을 오히려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석패율제가 지역구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중진 의원들의 ‘부활용’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선자와 낙선자의 득표비율로 가장 아깝게 진 후보를 구제하는데, 정치신인이 중진 의원의 석패율을 따라가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청년·여성 등 정치신인들의 원내 진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석패율제의 도입이 이



야 ‘3당+1’, 선거법 합의 민주당과의 선거법 협상을 앞두고 ‘연동형캠프 수용·석패율제 도입’의 단일안을 마련한 민주평화당 정동영(왼쪽부터)·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대안신당 유성엽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합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정신에 반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반면 소수야당들은 이는 석패율제의 본래 취지를 지나치게 호도한다고 반박한다.

석패율제가 특정 정당의 특정 지역에 대한 ‘독식’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역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소수정당의 경우 현지 출마를 독려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정의당의 경우, 민주당이 석패

율제를 반대하는 진짜 속내는 ‘표 분산’에 대한 우려에 있다고 주장한다.

기본적으로 석패율제의 도입은 지역구의 ‘약체’ 후보자들에게 당선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는 제도다. 상대를 넘어서지는 못하더라도 근접해서 따라붙으면 비례대표 후보자로 올라 당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기반이 약한 정의당이 ‘내년 총선에선 전국에 지역구 후보를 내겠다’

고 선언하며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의당과 지지층이 일부 겹치는 민주당으로서는 정의당의 이 같은 방침이 우려스러운 대목일 수 있다.

특히 적은 표차로 승부가 갈리는 수도권 등 경합지의 경우 정의당의 지역구 후보 완주로 표가 분산되면 낙선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시각이라고 정의당은 보고 있다. /연합뉴스

총선 브리핑

양향자 전 최고위원 서구를 예비후보 등록

양향자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8일 광주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서구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는 양 전 최고위원에게 ‘예비후보 적격 판정’을 통보했다.

양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며 민주 영령들의 넋을 기렸다. 방명록에 ‘사분오열된 광주정치의 시대가 저물었습니다. 광주의 자긍심을 되찾고 민생경제를 우선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양 전 최고위원은 “지난 총선에서 광주 시민은 제 3당에 힘을 실어줬으나 광주 국회의원들은 탈당과 분당, 합당과 창



당이 이어지는 사분오열 정치로 실망만을 안겨줬다”며 “구태정치와 결별하고 민생경제를 우선하는 광주정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 전 최고위원은 1967년생으로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재학 중에 삼선전지에 입사해 상무까지 승진한, 고졸 삼선입문으로 잘 알려졌다. ‘문재인 영입 인사’로 발탁돼 제20대 총선에 광주 서구에 출마했고,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겸 최고위원으로 2016년 선출됐다. /김다이기자

“변화와 혁신”…김해경 동남을 예비후보 등록

김해경 남부대학교 겸임교수가 17일 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동남을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앞서 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 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김 예비후보는 등록을 마친 뒤 제 4차산업혁명시대의 감성을 겸한 변화와 혁신의 새로운 리더로 존경받는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는행 재직시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도전한다는 마케팅 철학의 김 예비후보는 33년간의 금융현장경험과 고객지향 서비스정신, 탄력한 리더십이 제화한 금융전문가이다. 더불어 봉사활동을 통한 문화예술



에도 전문가적인 식견을 겸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예비후보 등록 이후 활동계획은 지역 곳곳 현장에서 지역민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지역주민과 함께할 예정이다. 특히 광주와 동구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문화관광 활성화에 함께할 계획이다.

김 예비후보는 1981년 광주은행에 입사해 2011년 광주3지역 영업본부장에 임명돼 광주은행 최초로 여성이 임원의 지위에 오르는 신화를 이뤘다. /김다이기자

이용빈 광산갑 ‘황룡강 르네상스 시대’ 선언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광산갑 국회의원의 예비후보는 18일 광산구 월곡동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황룡강 르네상스 시대’로의 첫 번째 도약 ‘광산형 그린뉴딜 도시(GET-CITY)’ 광산 선언을 발표했다.

‘GET-CITY’는 광산구가 새로운 경제문명의 발상지로 도약하는 정책비전으로 3대 핵심비전, 4대 핵심 가치, 5대 핵심 정책을 담았다. 이번 정책은 광주와 호남의 미래경제 기틀을 세우고, 경제침체와 기후위기의 이중고를 해소하며, 4차산업혁명과 지역성장을 복돋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GET-CITY’는 ‘광산의 새로운 경제문명을 여는 반가운 도시를 연다’라는 뜻



으로 3대 핵심 비전은 (Green-ware) 마을을 얻는 녹색도시, (Economics) 꿈을 얻는 경제도시, (Tech) 미래를 얻는 스마트도시다.

이 후보는 “함께 전진하게 될 광산과, 광산이 비추기에 더 밝은 광주, 광주가 이끌어 갈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광산 경제 구상을 밝히고, ‘내 삶의 반가운 변화’를 이끌어 낼 ‘광산의 새로운 경제문명 시대’인 ‘황룡강 르네상스 시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다이기자

정준호 북갑 예비후보 “아동학대 예방책 모색”

투표권이 없어 선거 때마다 소외받는 어린이들을 위해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차별행보에 나섰다.

정 예비후보는 18일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벌외주의 법규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예방책 모색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예비후보는 “아동학대의 특성상 발견되기 쉽지가 않고, 정서적 학대에 대한 법적구제도 모호하다”며 “아무도 발견하지 못할 때까지 아동들이 받는 심리적 고통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범위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정 예비후보는 부모 및 친지들의 경우 ▲아동수당 신청 시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아동발달 교육과정 도입 ▲계획에 없는 임신으로 힘들어하는 부부에게 양육멘토링 도입을 제안했다.

정 예비후보는 “젊은 광주의 시작은 미래를 키우는 일부터다. 투표권이 없다고 소외받아서 안 된다”며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의 마음이 편안한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다이기자

김성진 광산을 예비후보 출근길 인사 나서

김성진 더불어민주당 광산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8일 아침 수완지구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아침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거리인사에 나섰다.

김 예비후보는 17일 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 후 언론사 내방을 시작으로 지역민과 소통하고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아침 출근길 인사를 시작했다.

김 예비후보는 “예비후보 등록 후 아침 인사에 나서며 광산 지역주민, 광주시민에게 직접 인사를 시작한다는 것에 가슴벅차움을 느꼈다”고 소회를 밝히며, “더욱 가까이, 더욱 낮은 자세로 소통하



며 시민들을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출근길 시민들에게 일일이 하리 굿해 인사하며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경제중심도시 광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알렸다.

김 예비후보는 고충 출생으로 광주대동고와 건국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33회 합격,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문재인대통령후보 산업경제 특별보좌관, 호남대 산학협력단 초빙교수,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다이기자

우기종 목포 출마…“호남정치 바꾸겠다”

내년 4월에 실시되는 제21대 총선에서 전남 목포 지역구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우기종 예비후보는 18일 “목포 중심의 정권 재창출로 호남의 정치적 운명을 바꾸고, 서남해권 신산업을 창출해 목포의 경제적 운명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우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목포시 백련대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두 가지 일에 저의 모든 경험과 열정을 쏟아붓겠다”면서 총선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우 예비후보는 “목포의 경제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면서



“호남차별만 외치며 정부의 선심성 예산에 안주했다. 그마저도 실질적인 목포발전에 쓰이기 보다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거나 분열의 도구로 쓰였다”고 지적했다. 우 예비후보는 “김대중 대통령 이후 20년만에 인물도, 세력도, 호남이 중심이 될 수 있는 더 없이 소중한 기회를 맞았다”면서 “호남의 자립이라는 경제적 운명을 결정하는 이번 총선에서 목포의 성장가능성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재만기자